

특특뉴스

광주상의, 초급 실무자 연말정산 강좌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7층 대회의실에서 '초급 실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해마다 바뀌는 개정세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한편 초급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주의사항까지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연말정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 개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 과정을 세분화해 기본 개념의 정의부터 평소와 달라진 주의사항이나 새로 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나 회원사업본부(062-350-5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발 묶인 선거운동...예비 입지자들 속 탄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D-97

광주·전남 199곳서 조합장 선출

토론회 등 금지...표매수 되풀이

선거법 개정 목소리 국회는 뒷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도 불밀 선거전에 들어갔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행보를 옮기는 징검다리로 활용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입지자들의 선거운

동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진행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전남은 18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 140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이다. 광주의 경우 18곳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농협 16곳, 수협 1곳·산림조합 1곳이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예비 입지자들은 불만이 많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일반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

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고질적인 표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항상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조합장 선거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을 홍보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TV토론회 가능해져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농협의 한 조합원은 "사실상 선거에 임하면 입지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이 모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개정돼 현직과 신인들이 보다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그래픽 경제

국산전기차 내수 판매량



국산 전기차 10만시대 열렸다

올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10월 자동차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완성차 5사의 전기차 판매는 10만7,783대로, 작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

완성차 5사의 국내 전기차 판매가 10만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광주은행, 지역 여성 청소년에 '핑크박스'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손잡고

23종 보건·위생물품 지원

'개나리회' 제작 파우치도

광주은행은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송중옥 은행장과 김현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최선영 광주은행 여직원모임 개나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성 위생용품 구입이 힘든 지역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를 위해 송 은행장과 광주은행 여직원의 모임인 '개나리회' 회원들은 여성 위생용품, 물티슈, 찜질팩, 바다용품, 여성 청계제 등 23종의 보건·위생물품으로 구성된 핑크박스를 제작했다. 이와 더불어 개나리회 회원들이 직접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최선영 광주은행 개나리회장, 송중옥 광주은행장, 김현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 /광주은행 제공

만든 파우치도 전달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매년 임직원들과 함께 핑크박스 with 광주

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은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동근씨 선임...9일 취임



김동근 전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사진)이한 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광산업진흥회는 최근 비대면 화상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제8대 상근부회장으로 의결, 선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오는 9일 진흥회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단임 3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남대 금속공학과 학·석·박사를 졸업한 김 부회장은 지난 2013년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광주·전남·전북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합해 출범한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재임하며 지역사업 발굴·유치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홍승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